

트럼프의 '손해보지 않는 전쟁', 그 이후

태평로



임민혁
국제부장

2000년대 초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라크 다음으로 이란을 치자고 주장했다. "악마와 같은 이슬람 율법 정치가 지배하는 광신적 국가의 외부의 힘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 도시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일을 두고 볼텐가"라고 했다.

이란 네오콘을 '전쟁광(war monger)'이라고 비판하며 뜬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끊임없는 해외 개입에 지쳐 있던 미국인들은 그에게 표를 던졌다. 그는 1기 고별 연설 때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은 지난 대선 전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가 무모하게 미국인들을 해외 전투에 보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란과 전쟁은 없다(No war with Iran)"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광'들도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란 공격을 전격적으로 감행했다.

트럼프에게 붙어 있던 '전쟁 반대'

'불개입주의' 수식어는 큰 오해였던 것 같다. BBC에 따르면 오바마가 8년 임기 동안 드론 공격을 1878회 승인했는데, 트럼프는 1기 첫 2년 동안 2243번 드론 공격 명령을 내렸다. 2020년 이란 혁명 수비대장 사살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었다. 트럼프는 2기 들어 국방부 장관을 '전쟁부'로 바꿨고, 예산을 깨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벌였다.

트럼프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손해보는 전쟁'을 싫어할 뿐이다. 그가 '재앙'이라고 부른 이라크전을 예로 들면, 폭격 후 혼란은 트럼프 관심 밖 "국가 건설 수렁 빠지지 않을 것" 종착점이 '젊은 하메네이'라면 이란 국민 미래는 더 암울해져 후세인을 제거한 후 석유를 취하고 빠지는 게 그의 방식이다. 그러지 않고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한 게 바보짓이었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아리석은 교전 규칙도, 국가 건설의 수렁도, 민주주의 구축 운동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전쟁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 트럼프는 이란 국민에게 폭압적인 체제에 맞서 들고일어나라고 촉구했지만, 그 이후 계획은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 다음 정권이 민주체제

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대표적 네오콘 더글러스 페이스 전 국방부 차관은 언론 기고에서 "트럼프는 폭격 이후 혼란에 관심이 없다. 과거 부시는 사악한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과 별개로 그 나라 국민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다르다"고 했다.

지금 호르무즈 문제로 미국이 예상보다 고전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미국 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박탈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수준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압도적 화력으로 적국 수장을 제거함으로써 '까불면 죽는다'는 공포도 심어줬다. 여기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충분히 '승리' '성공'으로 포장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다만 트럼프의 '손해보지 않는 전쟁' 이후 이란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악의 경우 '87세 하메네이'가 '57세 하메네이'로 바뀌는 것뿐일 수 있다. 수천~수만 명 시위대를 학살한 혁명수비대는 더 가혹한 통제를 할 것이고, 무너진 인프라에 경제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이야 전 세계가 이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유가 문제 등이 해소되면 국제사회의 관심도 급격히 식는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대로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새 국제 질서의 밑바탕은 이토록 냉혹하고 잔인할 수 있다. '먼 나라 얘기'라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3]

여성이 초상화에 담은 케네디

미국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는 '대통령실'이 따로 있다. 어두운 배경에 경직된 자세를 한 비슷비슷한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지나 '존 F. 케네디' 앞에 서면 그 파격에 놀라게 된다. 거대한 캔버스 속에서 케네디는 셔츠 차림으로 의자에 반쯤 걸터앉아 금방이라도 일어날 듯 몸을 기울이고 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거친 붓질로 쓸어 올린 파랑, 노랑, 초록의 색채를 뚫고 나온다. 작가는 일레인 드 쿠닝(Elaine de Kooning·1918~1989). 당시 미술계에서도 드문 여성이었지만, 대통령 공식 초상화 기로도 그녀는 최초의 여성이다.

드 쿠닝이 '모델' 케네디를 처음 본 건 1962년 12월 플로리다의 팜비치였다. 화가는 "황금빛 광채에 둘러싸여 홀로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TV 시대의 첫 대통령"으로 불리지만, 그때의 TV

는 컬러가 아니었다. 흑백 화면은 그의 '포도처럼 진한 자주색' 눈동자와 황금빛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토록 화려한 외모라면 강렬한 색채와 자유분방한 제스처로 인물의 개성을 빠르게 포착해 그려내던 드 쿠닝에게 다행히 훌륭한 모델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케네디가 항상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젊고 활기찬 그에게 초상화를 위해 멈춰 설 시간은 없었다.

드 쿠닝은 늘 스쳐 지나가듯 사라져 버리는 케네디를 붙잡기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남겼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더해 초상화를 완성하기도 전에, 케네디는 암살자의 총탄을 맞고 사라져 버렸다. 한참 뒤 완성된 초상화에는 냉전의 한복판에서 인간을 달아 보내려 했던 시대의 진취적 이상이 담겨 있다. 여전히 스쳐 지나가듯 아슬라하게.



일레인 드 쿠닝, 존 F. 케네디, 1963년, 캔버스에 유채, 260.4×111.8cm, 미국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국립 초상화 미술관 소장.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여수·포항 이어 당진·울산, 산업 도시들 잇단 위기 신청

충남 당진시와 울산 남구가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데 이어 인천 동구도 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철강 산업 중심인 당진, 석유화학 거점인 울산 남구에 이어 수도권 철강 산업 기지인 인천 동구까지 위기를 선언한 것은 제조업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 최근 1년 새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한 여수·서산, 철강 도시 포항·광양 등 '국가대표급' 산업 도시들이 줄줄이 위기 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도시가 생존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 기댈 처지가 된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고비용 구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등의 거센 추격 속에서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험 신호는 상장사들의 작년 4분기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코스피 지수가 한때 6000선까지 넘는 등 증시는 들떠 있지만 현장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증권사들이 실적을 추정하는 상장사 246개사 중 64%에 달하는 158개사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의 호황을 제외하면 실물 기업 과반수가 어려

운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는 수출 주도형인 제조 기업들에게 물류비와 원자재 조달 비용을 올리고 있다. 가뜰이나 수익성이 약화된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악재다. 증권사들은 상장 기업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기업 실적 부진은 결국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이 된다. 지금 당진·울산·포항·여수·인천 등에서 들려오는 경보음을 왔다가는 경기 사이클로 받아들여선 안된다. 과거처럼 몰락하는 산업에 세금을 쏟아부어 연명하는 식의 해법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의 연착륙'과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을 병행하는 정교한 설계다. 이 그림을 그려야 할 곳은 정부다.

위기의 이유가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화 이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이런 결단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산업이 오랫동안 변화 없이 정체된 이유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국가산업 지도를 새로 그린다는 생각까지 했으면 한다.

지지율 2배 민주당은 외연 확장 추진, 국힘은 거꾸로

민주당 진명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을 외연 확장의 계기로 만들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유입된 20%가량의 지지층을 '뉴이재명'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외연을 넓히는 통합 정치를 구현하자"고 했다.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으로 가자"는 의연도 있었다. 기존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층에 중도와 보수 지지층까지 더해 당의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다.

실제 새로 유입된 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원전이나 반일(反日) 문제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보수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를 계기로 극단 유튜브버와 거리를 두자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말하면서도 실제 입법에서는 법 외곽

외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으로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외연 확장'이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는 화두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정작 외연 확장이 시급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절원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실질 변화엔 나서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 요구에도 당 지도부는 "시가지조"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국힘에 등을 돌린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에 달했다. 국힘은 32%였다.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고, 국힘은 마치 지지율이 앞선 정당처럼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국힘은 또 한번 선거 참패가 불가피하다. 당대에 경제 능력을 상실하면 국민에게 해롭고 결국 여당에게도 좋지 않다.

공공기관 통폐합, 노조 좋고 국민 손해인 방식은 안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안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선,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통합 시너지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48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2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두 공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13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일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한편 5개 발전 자회사도 원칙없이 통합할 경우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회사가 정착한 지

역 경제에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의 발전 분할 체제는 김대중 정부 때 추진한 것이다.

KTX와 SRT 통합은 연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철도 경쟁 체제가 정착한 이후 소비자인 국민 반응이 좋았다. 반면 민노총과 철도 노조에 경쟁 체제가 눈엣가시였다. 그걸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 숙원 하나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단번에 없애버렸다. 공항과 철도 서비스 등을 통합할 경우 '거대 노조'가 출현해 노동계 발원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쟁 체제에선 한쪽 노조가 파업을 해도 다른 쪽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통합될 경우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업무 효율화와 공공성의 조화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노조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 영역이 겹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이 맞지만 경영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운영 효율이 떨어지면 적자·난립한 기관은 통폐합하는 게 옳다. 그와 동시에 국민은 공공 분야에서 활발한 서비스와 효율성 경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K-미사일의 아버지 이경서 저서 《박정희의 자주국방》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1978) ... 그게 바로 '백곰' 박정희의 위대한 공로, 자주국방-중공업에 목숨 바쳐 DJ '무명 배우 입고 차 없이 걸여 다녀도 평등하면 좋아'

박정희 대신 김대중이었다면? ... K-방산 없다! 이란 미사일 요격 천궁-II도!

뉴데일리 newdaily.co.kr

시작은 이명박 정권의 2009년 UAE 원전사업. 군사적 성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뒤따랐다. 중동 국가들 중 최초로 밀접한 관계. 문재인 정권은 원전 버려 운운 난리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문제 삼았다. 문 정권 말기인 22년 1월에 천궁-II 계약. UAE 왕세제는 문재인과의 회담을 돌연 취소했다. 불쾌감의 표시.

좌파들은 원전에 그랬듯, 방산에도 늘 부정적이며 적대적. 북핵에는 입을 다물면서도 방산에 대해서는 늘 시비를 건다.

◀ 경부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드러난 위 반대하는 이란비 (민족민중계몽) 추종자들. 당시 YS-DJ를 비롯하여 양 진부와 대부분의 인원은 우물만 개구 리들이었다. 박정희의 (수출경제-중화학공업화-자주국방)을 기를 쓰고 반대-평화-행방했다. 무조건 평등분 배하면 된다는 유교적 사회주의에 찌든 행태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 손해보형업계의 거인 단암이 필적 전 국제화재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은 허버드대 경제학박사로, 박정희 정권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석유 쇼크에서 한국경제를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란 평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추진에 두 형제 모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 백곰 미사일 개발 주역 이경서 박사.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업체 담당시스템즈 회장.